

#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2-지역이슈-24(2022.12)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 동향



### CONTENTS

- I.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정치 관계 동향
- II.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 관계 동향
- III.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사회 관계 동향
- IV. 시사점

### 작성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2-3603)  
ykj@koreaexim.go.kr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 요약 >

### I.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정치 관계 동향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UN에서 대 러시아 비판과 규탄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총회에 참석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표들은 대체로 투표에 기권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영토 병합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법 개정을 통해 자국민의 러시아군 입대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음.
- 한편, 러시아는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CIS(독립국가연합), CSTO(집단안보조약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II.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 관계 동향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2022년 대 러시아 수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1~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카자흐스탄은 15.1%, 타지키스탄은 2.2% 증가하였으며, 1~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우즈베키스탄은 5%, 키르기즈는 7.0% 증가하였음.
- 기계 및 설비, 전자제품, 컴퓨터 등의 수출이 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러시아의 병행수입 제도 도입에 따라 외국 제품의 중앙아시아를 통한 우회 수출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됨.
- 러시아 정부는 EU, 미국 등의 대 러시아 에너지 부문 제재에 대응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11월 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3국의 가스 연맹 창설을 제안하였음.
-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금융기관들은 러시아 금융결제 시스템인 미르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페이 포함)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III.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사회 관계 동향

-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에서 부분 동원령이 공포된 2022년 9월 21일 이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러시아인들이 유입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9월 21일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 공포 이후 9월 말까지 2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카자흐스탄을 거쳐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이동하였음.
- 서방의 제재로 인해 대금 결제 등 대외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러시아 기업들 중 일부가 카자흐스탄으로 이전하였음.

#### IV. 시사점

- 전쟁 이후 러시아는 EAEU, CSTO, CIS 등 자국이 주도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입(UN 영세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제외)한 기구를 통해 정치, 안보, 경제 부문의 협력 확대를 추진함.
- 그러나 2022년에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중앙아시아 정상들이 공개적으로 러시아 정부를 비판하는 등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 가능성이 제기됨.
-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 러시아 및 대 중국 일변도의 경제협력에서 벗어나 유럽과의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 다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공급망, 제조업,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I.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정치 관계 동향

### UN의 대 러시아 규탄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

- (대 러시아 규탄 투표에 기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UN에서 대 러시아 비판과 규탄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총회에 참석한 중앙아시아 정부 대표들은 대체로 투표에 기권하고 있음.
- 전쟁 직후인 2022년 3월 2일 개최된 UN 총회에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투표에 불참하였으며, 이후 총회에서는 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이 불참하였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규탄이나 즉각 철군 등에 대한 투표에서는 기권하였으며,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배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음.

[표 1] UN의 대 러시아 규탄 관련 표결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

회의 (일시)	회의 내용	표결 결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표결 내용
UN 총회 결의 (2022.3.2.)	- 러시아 침공 규탄 - 러시아 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군 - 러시아의 무력사용 즉각 중단	- 141개국 찬성 - 5개국 반대(러시아, 시리아, 북 한, 에리트리아, 벨라루스) - 35개국 기권(중국, 인도 등)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 탄 투표 불참 나머지 국가들은 기권
UN 긴급 특별총회 (2022.3.24.)	-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 위기와 이에 대한 러시아 책임 명시에 대한 결의	- 140개국 찬성 - 5개국 반대(러시아, 북한, 에리 트리아, 시리아, 벨라루스) - 38개국 기권	투르크메니스탄 투표 불참 나머지 국가들은 기권
UN 긴급 특별 총회 (2022.4.7.)	- 러시아의 유엔인권 이사회 이사국 배제	- 93개국 찬성 - 24개국 반대(카자흐스탄, 키르 기즈,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 탄, 북한, 중국, 이란, 시리아, 베트남 등) - 58개국 기권	투르크메니스탄 투표 불참 나머지 국가들은 반대
UN 긴급 특별총회 결의 (2022.10.12.)	-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4개 주에 대한 러시아 합병 반대, 합병 철회 - 러시아의 군 병력의 즉각, 완전히, 무조건 철수	- 143개국 찬성 - 5개국 반대(중국, 북한, 시리아, 니카라과, 러시아) - 35개국 기권	투르크메니스탄 투표 불참 나머지 국가들은 기권
UN 총회 결의 (2022.11.14.)	-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배상	- 94개국 찬성 - 14개국 반대 - 73개국 기권	투르크메니스탄 투표 불참 나머지 국가들은 기권

자료: UN

- (전쟁 및 영토 병합에 대한 입장)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영토 병합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대체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며 외교적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지지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음. 전쟁과 영토 병합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특히 카자흐스탄은 대통령과 외교장관 모두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에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 다민족 국가로 구성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토 병합이 자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일국 내 영토의 독립이나 주변국에 의한 병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표 2] 전쟁 및 영토 병합에 대한 중앙아시아 각국의 입장 표명과 국민 인식

국가	전쟁	영토 병합	국민 인식*
카자흐스탄	- 중립적 입장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쟁 중재 제안, 반전 시위 허용, 반러시아 블로거 구속)	-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독립 공화국 불인정, 우크라이나의 독립·주권·영토보전 지지 :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한스크 공화국의 러시아 병합 관련 외교장관 발언(2022.4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의 카심조마르트 토크야프 대통령 발언(2022.6.17.) 등	- 전쟁의 영향: 부정적 35%, 매우 부정적 29%, 영향 없음 23%.  - 부정적 영향의 결과: 국제정치경제 긴장 44.6%, 생필품 물가 상승 11%
우즈베키스탄	- 중립적 입장 (갈등의 외교적 해결 촉구)	-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독립 공화국 불인정, 우크라이나의 독립·주권·영토보전 지지	- 부정적 영향의 결과: 국제정치경제 긴장 58.6%, 생필품 물가 상승 18.6%
키르기즈	- 중립적 입장 (전쟁 직후에 정부의 러시아 지지, 이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 중립 언급, 반전시위 불허)	-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독립 공화국 불인정	- 전쟁의 영향: 부정적 36%, 매우 부정적 34%, 영향 없음 15%.  - 부정적 영향의 결과: 국제정치경제 긴장 29.3%, 생필품 물가 상승 24.8%
타지키스탄	- 중립적 입장 (전쟁에 대한 정부의 공식 언급 자제)	-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독립 공화국 불인정	
투르크메니스탄	- 언급 없음	- 언급 없음	

\* 설문조사: Central Asia Barometer Survey, 2022.5~6월 실시<sup>1)</sup>

- (중앙아시아인들의 러시아군 입대 추진 적극 반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법 개정을 통해 자국민의 러시아군 입대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음.
- 러시아 두마(하원의회)는 2022년 9월 20일 '국적획득 간소화법'의 개정을 통해 '계약에 따라 외국인의 군 복무를 가능케 하고 이들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sup>2)</sup> 이러한 법 개정은 9월 21일 러시아 정부의 '부분 동원령' 발표 직전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이주노동자들도 군 복무 가능 대상에 포함되었음.
- 또한 러시아 정부는 2022년 11월 대통령령을 통해 과거 규정에는 없었던 이종 국적 러시아인의 징병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는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법 개정에도 따라 자국 출신 러시아 거주자들의 러시아군 입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가장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많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는 러시아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자국 이주노동자들이 러시아군 입대 시에 최고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한 바 있음.<sup>3)</sup>

1) Central Asia Barometer Survey <https://thediplomat.com> (2022.10.24.)

2) <http://duma.gov.ru> (2022.9.20.)

3) <https://thediplomat.com> (2022.9.22.); <https://www.pravda.com.ua> (2022.9.21.)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라시아 다자기구 회의 개최

- 러시아는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CIS(독립국가연합), CSTO(집단안보조약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자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유라시아 지역 국제기구들을 통해 역내 정치, 안보 및 경제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로서는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 시행으로 대외경제협력이 어려워지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양한 경제협력이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었음.
- 그러나 최근 국제기구 회의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태도 변화 조짐이 나타남.
- 2022년 10월 키르기즈는 합동 군사훈련 개시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훈련 참여를 취소함. 이는 키르기즈-타지키스탄 국경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돌<sup>4)</sup>에 대해 CSTO가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2022년 11월 CSTO 정상회담에서 아르메니아 정부는 9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대규모 군사적 충돌 시 CSTO의 미지원에 대해 비판하였음.
- 2022년 10월 개최된 CIS 정상회의에서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자국이 러시아로부터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러시아 정부를 비판함.

[표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 주요 국제 회의

회의	일시, 장소	회의 주요 내용	참가국
독립국가연합(CIS) <sup>5)</sup> 정상회의	2022.10.14.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 2023~26년의 주요 계획 - 부패, 테러, 극단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 - 기후 문제 공동 대응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sup>6)</sup> 정상회의	2022.11.23. (아르메니아 예레반)	- 역내 긴장 완화,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 역내 안보 유지 - CSTO 평화유지군을 첨단 무기로 무장	러시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sup>7)</sup> 정상회의	2022.12.9. (키르기즈 비슈케크)	- UAE와의 FTA 논의 - 금융산업 협력 - 상품 및 서비스 시장 통합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 아르메니아

4) 2022년 9월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 국경지대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여 양측에서 100여 명이 사망한 바 있음.

5) CIS는 소련 붕괴 이후 조직된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의 협의체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9개국이 회원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이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발트 3국을 제외한 구소련 12개 국가들 중 미참여국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이며, 이 두 국가는 각각 회원국(조지아)과 준회원국(우크라이나)의 지위를 탈퇴한 바 있음.

6) CSTO는 소련 붕괴 이후 조직된 유라시아 지역 안보기구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가 회원국이며,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우즈베키스탄은 가입 후 탈퇴하였음.

7) EAEU는 유라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협력을 위해 러시아 주도로 조직된 협의체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아르메니아가 회원국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옵저버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II.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 관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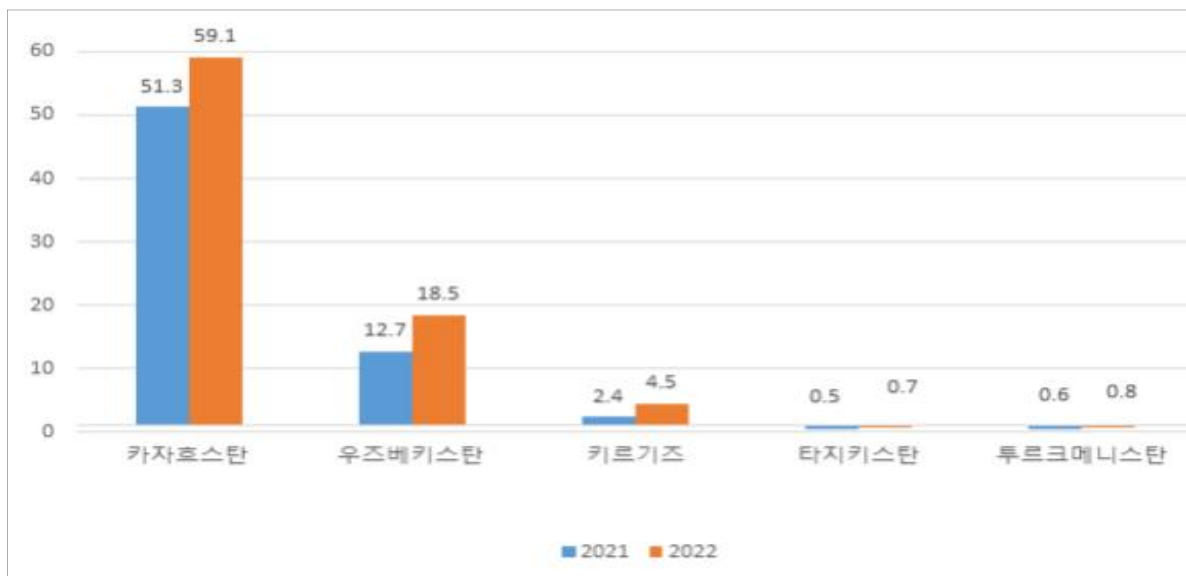
### 202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 러시아 수출 증가 추세

- (수출 증가) 202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 러시아 수출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sup>8)</sup>
- 1~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카자흐스탄은 15.1%, 타지키스탄은 2.2% 증가하였으며, 1~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우즈베키스탄은 5%, 키르기즈는 7.0% 증가하였음.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1~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하였음.<sup>9)</sup>
- 품목별로는 기계 및 설비, 전자제품, 컴퓨터 등의 수출이 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러시아의 병행수입 제도 도입에 따라 외국 제품의 중앙아시아를 통한 우회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러시아의 병행수입 제도 시행

-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따른 자국 내 물품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급등을 우려하여 2022년 3월 30일 병행수입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병행수입 증가에 따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음.
- 병행수입 제도의 시행에 따라 상품의 특허 및 상표권 보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독점 수입업자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들의 상품 수입이 가능해짐.
- 이후 2022년 5월 러시아 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의약품, 화장품, 약기, 기계 등 96개 항목에 이르는 병행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발표하였음.<sup>10)</sup>

[그림 1] 중앙아시아 국가별 대 러시아 수출 증가(억 달러)



\*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은 1~9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는 1~8월, 투르크메니스탄은 1~5월 기준  
자료: <https://www.currenttime.tv>

8) 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은 1% 증가에 그쳤음(<https://tengrinews.kz>).

9) <https://www.currenttime.tv>

10) <https://vc.ru> (2022.5.6.)



- (카자흐스탄) 2022년 1~9월 중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하였음.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기계 및 설비, 자동차, 목재 등의 제품 수출이 주로 증가하였음.
- 기계 및 설비 제품이 가장 높은 284.3%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어 목재 및 종이 제품이 199.2%, 건축자재가 128.7%, 화학제품이 103.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sup>11)</sup>
- 소재, 컴퓨터, 가전제품, 일부 기계장치 등의 수출액도 크게 증가하였음.<sup>12)</sup> 소재의 경우 산화알루미늄이 2.5배, 아연이 2.1배, 우라늄이 2배 증가하였음. 전자제품과 컴퓨터의 경우 TV와 모니터가 312배, 휴대폰이 88배, 컴퓨터가 215배 증가하였음(1~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sup>13)</sup>

[표 4] 카자흐스탄의 대 러시아 주요 수출품과 증가율(2021~22년 1~9월 비교, 백만 달러)

구분	2021.1~9월	2022.1~9월	증가율(%)
<b>전체 수출액</b>	<b>5908.0</b>	<b>5132.0</b>	<b>15.1</b>
금속 및 금속제품	5132.0	5908.0	-14.1
광물	1734.6	1490.0	-28.1
화학제품	633.4	1416.4	103.2
<b>기계, 설비, 운송수단</b>	<b>319.3</b>	<b>1287.2</b>	<b>284.3</b>
식품	402.1	349.5	-13.1
목재, 펄프 및 제지	14.9	44.6	199.2
섬유산업	37.0	41.2	11.3
건축자재	10.0	22.9	128.7
가죽제품	1.1	1.7	55.2
신발, 모자 제품	2.2	1.2	-44.4
기타	8.5	26.0	205.8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그림 2] 카자흐스탄의 대 러시아 수출 증가제품(100만 달러 이상의 제품 중 증가율이 높은 품목, 백만 달러)

품목	2021년 상반기	2022 상반기
휴대폰	0.04	79.90
철도 차축	0.00	73.60
컴퓨터	0.19	35.80
컴퓨터 부품	0.19	10.70
세탁기	0.00	8.20
폴리우레탄 폼 에어로졸	0.00	4.80
프린터기	0.02	4.80
진공청소기	0.02	4.20
전력용 콘덴서	0.34	3.96
전자레인지	0.00	2.80
의료용 엑스레이 기기	0.00	1.90
카드뮴-니켈 배터리	0.29	1.27
냉장고	0.00	1.10

자료: <https://kz.kursiv.media/en> 2022.8.22.

11) <https://tengrinews.kz>

12) <https://kz.kursiv.media>; <https://eurasiane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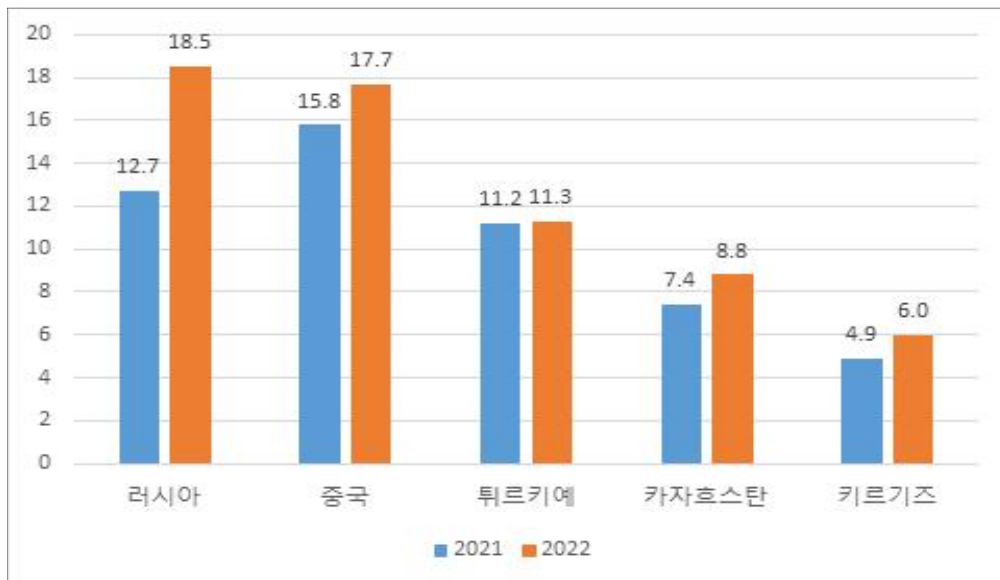
13) [https://rus.azattyk.org\(2022.11.15.\)](https://rus.azattyk.org(2022.11.15.))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2022년 1~8월 중 수출에서 주요 5대 수출상대국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수출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2022년 1~8월 중 우즈베키스탄의 대 러시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5%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다른 5대 수출상대국에 대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은 중국 16.7%, 튀르키예 10.3%, 카자흐스탄 7.8%, 키르기즈 5.0%를 기록하였음. 또한 이 기간 동안의 대 러시아 수출 증가에 따라 2021년 1위 수출상대국이었던 중국을 제치고 러시아가 1위 수출상대국이 되었음.
- 기존의 대 러시아 주요 수출품인 과일, 섬유, 의류 등과 함께 TV, 휴대폰,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도 증가하였음.<sup>14)</sup>

[그림 3]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5대 수출상대국과 수출액(2021~22년 1~8월 누적액 비교, 억 달러)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www.gazeta.uz/ru/2022/09/22/trade)

###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에너지 및 금융협력 추진

- (에너지 협력) 러시아 정부는 EU, 미국 등의 대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대응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를 추진함.
- (러-중앙아시아 가스 동맹 제안) 2022년 11월 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3국의 가스 동맹 창설을 제안하였음.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 대변인은 가스 동맹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에너지 공급을 통합하는 노선을 만들 것이라고 밝히며, 3국 가스 동맹은 각국 정부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함.<sup>15)</sup>
- 러시아 정부의 가스 동맹 제안은 서방의 제재에 따른 대 유럽 가스 수출량 감소에 대응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파키스탄으로 가스를 수출하고, 기존의 중앙아시아-중국 간에 건설된 가스관을 통해서도 러시아산 가스를 수출하려는 목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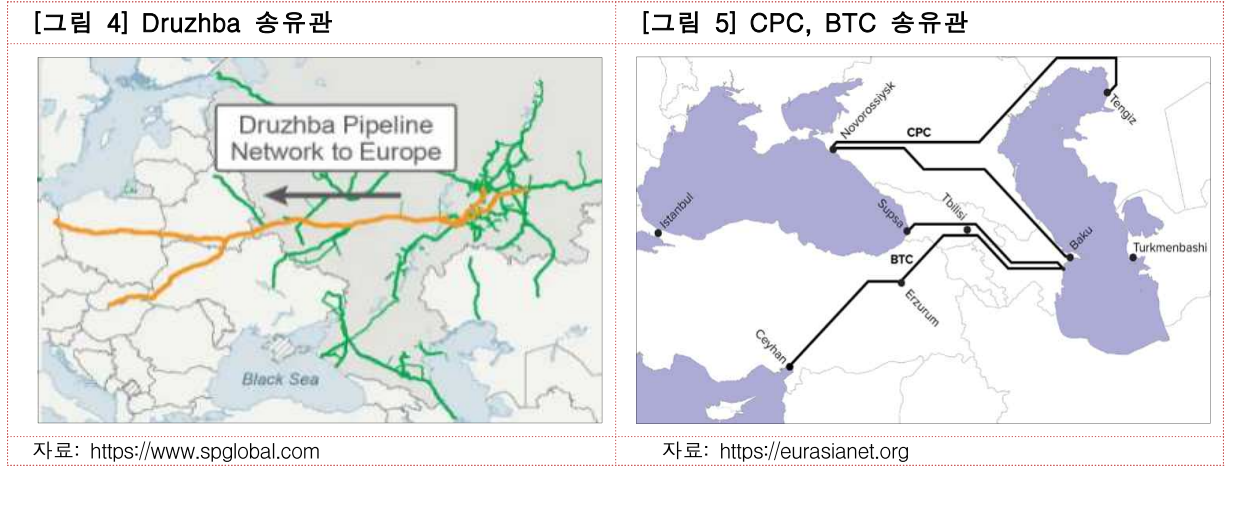
14) <https://rus.azattyk.org> (2022.11.15.)

15) <https://neftegaz.ru> (2022.12.9.)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 유럽 에너지 수출 증가 추세**

- 2022년 1~9월 카자흐스탄에서 독일로의 원유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하여 50.92억 유로를 기록함. 이에 따라 2022년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에서 우크라이나와 라트비아를 제치고 러시아 다음으로 독일과 큰 교역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sup>16)</sup>
- 2022년 12월 카자흐스탄 외무장관은 독일에서 개최된 독일 경제장관과의 회담에서 러시아를 대신하여 카자흐스탄이 독일로 원유를 공급할 수 있음을 밝힘. 카자흐스탄은 송유관을 통해 연 200만~500만 톤을 공급하고 추가로 선박을 통해 원유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카자흐스탄산 원유는 러시아를 통과하는 드루지바(Druzhba) 송유관이나 BTC 및 CPC 송유관과 선박을 이용하여 유럽으로 원유를 수출할 수 있음.



- (금융협력 변동)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금융기관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한 '국영카드 지불시스템(National Payment Card System)'이 운영하는 금융결제시스템인 미르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페이 포함)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사용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미르 카드는 러시아 이외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튀르키예, 베트남과 한국 등 9개국에서 사용되었음.<sup>17)</sup>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에서 사용이 중단되었으며, 2022년 10월 미국이 외국은행들의 미르 카드 서비스 제공에 대해 2차 제재 가능성을 경고한 이후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등의 은행들에서도 사용이 중단되었음.<sup>18)</sup>
- 그러나 2022년 12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카자흐스탄 내에서 미르카드의 사용을 승인하였음.<sup>19)</sup> 다만 미르카드의 사용은 생활에 필수적인 경우로 한정하며, 사용 가능대상은 카자흐스탄 개인과 러시아에서 이주한 러시아인들로 제한하였음.<sup>20)</sup>

16) <https://www.dw.com> (2022.11.24.)  
 17) 9개국 이외에 UN의 미승인국인 남오세티야, 압하지야에서도 사용되었음. 한국에서는 2021년부터 온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했으며, 2022년 2월부터는 체인형 편의점인 CU에서 사용이 가능했음. 그러나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BC카드는 2월 24일의 전쟁 발발 직후 2월 28일부터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였음.  
 18) <https://www.forbes.ru> (2022.12.10.)  
 19) <https://www.bfm.ru> (2022.12.9.)  
 20) <https://www.forbes.ru> (2022.12.10.)



### 러시아의 미르 카드

-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 이후 서방의 제재로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의 영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자, 러시아 정부는 2014년 7월 국영 카드 지불 시스템(National Payment Card System)을 설립하고 2015년 12월부터 미르 카드를 발급하였음.
- 2015년 12월 이후 러시아 국내에서 사용되었으며, 해외에서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에서 2018년에 처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2022년 3월 이후 러시아 내에서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의 영업이 다시 중단되자 미르 카드의 발행이 증가하여 1~8월 중 월평균 530만 개의 카드가 발행되었으며, 이는 2021년(240만 개)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임. 2022년 9월 1일 기준 1억 5,000만 개의 카드가 발행되었음.<sup>21)</sup>

### 중앙아시아 경제동향

- 2022년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입는 가운데 중앙아시아 경제도 경제성장률 둔화, 물가 상승률 상승 등의 영향을 받고 있음.
- 2022~23년(전망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22년에는 신흥국 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3.6%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3.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반면 물가상승률은 신흥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표 5]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률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세계	3.8	3.6	2.8	-3.0	6.0	3.2	2.7
신흥국	4.8	4.6	3.6	-1.9	6.6	3.7	3.7
중앙아시아 평균	<b>5.0</b>	<b>4.3</b>	<b>3.8</b>	<b>-1.6</b>	<b>4.3</b>	<b>3.6</b>	<b>3.7</b>
카자흐스탄	3.9	4.1	4.5	-2.6	4.1	2.5	4.4
키르기즈	4.7	3.5	4.6	-8.6	-3.7	3.8	3.2
타지키스탄	7.1	7.6	7.4	4.4	9.2	5.5	4.0
투르크메니스탄	4.7	0.9	-3.4	-3.0	4.6	1.2	2.3
우즈베키스탄	4.4	5.4	5.7	1.9	7.4	5.2	4.7

자료: IMF 2022년 10월

[표 6] 중앙아시아 각국의 물가상승률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흥국	4.5	5.0	5.1	5.1	5.9	9.9	8.1
중앙아시아 평균	<b>8.0</b>	<b>8.4</b>	<b>6.7</b>	<b>8.4</b>	<b>10.9</b>	<b>12.9</b>	<b>10.6</b>
카자흐스탄	7.4	6.0	5.2	6.8	8.0	14.0	11.3
키르기즈	3.2	1.5	1.1	6.3	11.9	13.5	12.4
타지키스탄	7.3	3.8	7.8	8.6	9.0	8.3	8.1
투르크메니스탄	8.0	13.3	5.1	7.6	15.0	17.5	10.5
우즈베키스탄	13.9	17.5	14.5	12.9	10.8	11.2	10.8

자료: IMF 2022년 10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거주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들 중 일부가 서방의 제재로 경기가 위축된 러시아를 떠나 본국으로 귀국함. 2022년 1분기에 이미 13.3만 명의 우즈베키스탄인과 6만 명의 타지키스탄인이 본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sup>22)</sup>, 이는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21) <https://www.gazeta.ru> (2022.10.27.)

22) <https://www.adb.org>



### Ⅲ.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사회 관계 동향

####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 발표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로의 러시아인 유입 증가

- 러시아 정부가 2022년 9월 21일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될 병력의 충원을 위해 '부분 동원령'을 발표한 이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러시아인들이 유입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9월 21일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 발표 이후 9월 말까지 2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대부분 징집을 회피하려는 성인 남성)이 러시아와 7,644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였음. 이들 가운데 7만 명이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나머지(14만 7,000명)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등 EAEU 국가들로 재이주하였다고 카자흐스탄 정부측이 발표하였음.<sup>23)</sup>
- 우즈베키스탄 정부 기관들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인들의 입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월 중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러시아인의 수는 39.5만 명이며, 이는 2021년 전체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임. 또한 우즈베키스탄 보안국에 따르면 6~9월 중 입국한 러시아인은 12.6만 명으로, 2021년 동기 대비 8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sup>24)</sup>
- 키르기즈의 경우도 올해 1~9월 중 19만 명의 러시아인이 거주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됨.

#### 서방의 SWIFT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러시아 기업 이전

- 서방의 제재로 인해 외국 거래처와의 대금 결제 등 대외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 러시아 기업들이 일부 카자흐스탄으로 이전하였음.
- 2022년 9월 1일 기준 카자흐스탄에서 영업 중인 러시아 기업의 수는 15,400개로, 2022년 초와 비교하여 4,000개 증가한 수치임. 카자흐스탄에 등록된 러시아 기업 수의 증가율은 2022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월 2.8%, 5월 4.6%, 8월 7.8%를 기록하였음.
- 업종별로 2022년 1월과 비교하여 8월에 기업 수가 가장 많은 증가세를 기록한 업종은 415개에서 1,122개로 3배 가까이 증가한 정보통신 부문임. 이어 연구 및 기술 관련 부문이 759개에서 1,695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외에 서비스, 운송, 제조업 부문의 기업도 수가 증가하였음. 반면에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은 큰 변동이 없었음.
- 러시아 기업이 가장 많은 부문은 유통 및 자동차 수리업으로, 2022년 초의 5,561개에서 8월에는 7,185개로 29% 증가하였음.
- 지역별로는 경제중심지인 알마티(연초 대비 40%), 수도인 아스타나(연초 대비 51%),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서카자흐스탄 지역(연초 대비 70%)에서의 증가율이 높았음.
- 아울러 러시아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으로도 사업을 이전한 것으로 집계됨.

23) <https://www.aa.com.tr> (2022.10.4.); <https://foreignpolicy.com> (2022.10.4.)

24) <https://podrobno.uz> (2022.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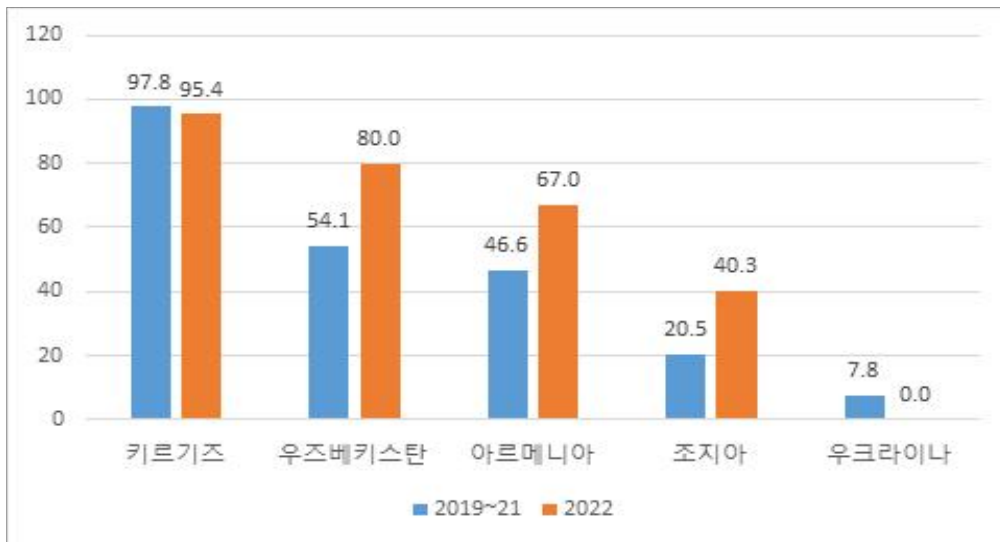


- 2022년 1~7월 중 우즈베키스탄에 신규등록된 러시아 기업의 수는 456개로 집계됨. 2022년 8월 1일 기준 우즈베키스탄에서 영업 중인 외국 기업 14,500개를 국적별로 분류하면 러시아 2,700개, 튀르키예 2,000개, 중국 2,000개, 카자흐스탄 1,100개, 한국 906개로 나타남.<sup>25)</sup>

### 중앙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이주노동 및 송금 관련 변동

- 중앙아시아 국가들로의 외부송금 유입액에서 러시아 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자국 앞 송금액이 점유하는 비중은 러시아 이주 노동자의 수가 가장 많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sup>26)</sup>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후 폭락했던 루블화 가치가 5월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침공 개시 전보다 상승<sup>27)</sup>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중앙아시아 국가들로의 외부송금 유입액에서 러시아 내 자국 노동자들로부터의 송금액이 점유하는 비중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21년 54.1%에서 2022년 80.0%로 증가하였으며, 키르기즈는 2021년 97.8%에서 2022년 95.4%로 약간 낮아졌으나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 2021년 러시아 정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거주 중앙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 수는 모두 780만 명으로 추정되며, 국적별로는 우즈베키스탄인이 450만 명, 타지키스탄인이 240만 명, 키르기즈인이 90만 명으로 추정됨.<sup>28)</sup>

[그림 6] 구소련 국가들로의 송금유입액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이 점유하는 비중(%)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우크라이나는 2022년 1~8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2022년 1~9월.

\*\*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로의 송금은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금지함.

자료: The World Bank.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37. November 2022. p. 32.

25) <https://uz.kursiv.media> (2022.9.29.)

26) The World Bank.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37. November 2022. p. 7.

27) 루블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 변동 추이: 74.50(2021.12.31.) → 135.80(2022.3.10.) → 53.24(2022.6.28.) → 73.75(2022.12.31.) (자료: xe.com)

28) <https://www.rferl.org> (2022.3.1.) 키르기즈 정부 측의 추정에 의하면 65만 명의 키르기즈인들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음. <https://www.eurasiareview.com> (2022.11.28.); <https://24.kg> (2022.12.19.)



###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와 송금유입액

- 세계은행에 의하면, GDP 대비 송금유입액의 비중이 높은 상위 10대 국가에는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3개국 포함되어 있음.<sup>29)</sup>
- GDP 대비 송금유입액 비중 순위에서 타지키스탄이 32.1%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이어 키르기즈가 31.3%로 세계 2위, 우즈베키스탄이 17.1%로 세계 5위를 기록함.
-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자국 앞 송금액 중 러시아 내 이주노동자들로부터의 송금액이 높은 비중을 점유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경제는 러시아 경제상황의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음.

[그림 7] GDP 대비 송금유입액 비중 상위 10대 국가(2022년 전망, %)



자료: The World Bank.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37. November 2022. p. 33.

29) The World Bank.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37. November 2022. p. 7.



## IV. 시사점

-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유지 지속을 기대함.
- 러시아는 EAEU, CSTO, CIS 등 러시아가 주도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입(UN 영세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제외)한 기구를 통해 정치, 안보, 경제 부문의 협력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함.
-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의 타개를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을 추진하고자 함. 이러한 차원에서 EU로의 천연가스 수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러시아-중앙아시아 가스 동맹을 제안하였으며, 동시에 러시아 금융기관들과 중앙아시아 각국 금융기관들 간의 금융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UN 총회에서 전쟁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러시아의 영토 병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에 대해 공개적으로 러시아 정부를 비판하였음.
- 이외에도 2022년 10월 CIS 정상회담에서의 타지키스탄 대통령의 발언(러시아가 자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에서 드러나듯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전과 달리 국제회의 등에서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음.
- 이미 2013년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이후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간 교역·투자·물류 등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며,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향후 중앙아시아 각국은 서유럽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등 경제협력 파트너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2022년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카자흐스탄 원유의 대 유럽 수출 확대가 추진되는 상황이 보여주듯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기존의 대 러시아 및 대 중국 일변도의 경제협력에서 탈피하여 서유럽,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협력 다변화를 더욱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에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여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고,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카자흐스탄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프랑스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협력 강화를 논의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공급망, 제조업,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우리가 장점을 가진 제조업, 의료, IT 등의 부문에서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2021년 우리나라의 10대 원



유 수입국 중 하나인 만큼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요 광물이나 희토류 등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아울러 현재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가 우리나라의 중점개발협력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교육, IT, 농업, 환경 등 다양한 개발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음.





## < 참고 문헌 >

The World Bank.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37. November 2022.

<https://thediplomat.com> (2022.10.24.)

<https://thediplomat.com> (2022.9.22.)

<https://www.pravda.com.ua> (2022.9.21.)

<http://duma.gov.ru> (2022.9.20.)

<https://vc.ru> (2022.5.6.)

<https://rus.azattyk.org> (2022.11.15.)

<https://rus.azattyk.org> (2022.11.15.)

<https://www.forbes.ru> (2022.12.10.)

<https://www.bfm.ru> (2022.12.9.)

<https://neftegaz.ru> (2022.12.9.)

<https://www.gazeta.ru> (2022.10.27.)

<https://kz.kursiv.media/en> (2022.8.22.)

<https://uz.kursiv.media> (2022.9.29.)

<https://www.rferl.org> (2022.3.1.)

<https://www.aa.com.tr> (2022.10.4.)

<https://foreignpolicy.com> (2022.10.4.)

<https://www.eurasiareview.com> (2022.11.28.)

<https://podrobno.uz> (2022.12.1.)

<https://24.kg> (2022.12.19.)

<https://www.adb.org>

UN 총회 <https://www.un.org/en/ga>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10.